

공화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적발제포된 남조선정보원 첩자 김정욱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월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국내 출판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기자들, 주조 외교대표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김정욱이 발언하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밤 중국 단둥에서 밀선을 타고 불법침입하여 료로로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8일 새벽 보안원들에게 단속되어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반공화국범죄행위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김정욱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으며 반공화국정탐행위, 반공화국종교행위를 하였다.

북에 《기독교》나라를 세우려던 현 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돈을 받고 북의 사람들을 협조자로 소개, 중개하였다.

뿐만아니라 중국 단둥에서 지하교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끌어들인 북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하거나 담화의 방법으로 북의 내부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하였다.

북의 사람들앞에서 정치체제를 모독하는 설교를 하고 또 그들스스로가 북을 헐뜯

## 남조선정보원 첩자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해 자백

는 기도를 하거나 글을 쓰게 하였으며 그들이 단둥으로 오는 남쪽과 미국사람들앞에서 반체제행동을 하게 하였다.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앞으로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동상이 있는 곳마다에 《교회》를 세우고 북의 전지교회에 500개의 《지하교회》를 세우면 북의 정치체제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나라가 서게 된다고 하면서 《지하교회》를 세울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하였다.

2008년 10월 남쪽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목사로부러 소개받은 4명의 《탈북자》들을 3국으로 빼돌리다가 단속되어 벌금을 내고 나온적이 있다.

북에서 넘어온 화교 6명을 3국을 거쳐 남쪽으로 빼돌리었고 자기가 운영하는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던 북의 사서려행사 전영철도 남쪽으로 보냈었다.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

지하교회로 사용하던 세집에 남쪽위성TV를 설치하고 수백천의 반공화국책들도 가져다놓고 북의 사람들을 세워시키는데 리용하였으며 서로간의 경쟁심을 부추겨 북

의 정치체제와 정책을 헐뜯게 하였다.

위성TV로 남쪽의 《기독교방송》, 성북화물통로를 비롯하여 100여개의 통로들이 나오게 하였으며 《탈북자》들의 수기와 북의 지도부와 체제를 헐뜯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종교잡지들을 가져다놓고 그들이 수시로 보게 하였다.

김정욱은 모든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북의 사람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한 범죄행위라는것을 인정하였다.

그는 북의 해당 법기관조사를 받는 과정에 자기의 범죄가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머릿속에 새긴 적대의식에 기초한것으로서 이 모든 행동은 우리 민족의 분열을 바라는 외무세력과 보수세력에게만 좋은것이며 우리 민족의 리익에는 절대적으로 배해무익한것이고 부질없는것이라는것을 깨달았다고 말하였다.

지금도 조선북부국경과 린접한 중국변방지역들에서는 많은 《대북》선교활동가들과 탈북유도인물들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자기가 한것과 같은 행동들을 하고있다고 하

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자기민족에 대한 적대감에 빠져 종교인들까지 리용하는 《국정원》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리용당하여 민족앞에 죄를 짓고있는 《대북》선교활동가들에 나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뒤늦게라도 잘못을 고쳐나가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죄를 지은 수십명의 북의 사람들에게 지난 기간 중국에서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거짓이며 범죄라는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들앞에 사죄한다.

이어 김정욱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는 공화국국경을 불법침입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 말하였다.

또한 공화국경내에 불법침입한 목적과 가지고온 짐속에 있는 물건들의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밀입국한 목적은 때가 되면 북의 민심을 흔들고 현정권과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리용할 《반체제지교회합본부》를 평양에 만들어 놓고 북의 내부실정과 《지하교회》활동상황을 촬영하여 남쪽교회와 《국정원》에 알려주는것이다.

국경을 넘어오면서 가지고온것은 성경책들과 기억카드, MP3 100개, 의약품과 식료품, 극소형카메라, 성북화물 CD 40장이다.

기억카드속에는 《기독교》영화들과 동유럽나라들이 붕괴될 때 지하교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상록, 성경강의, 찬송가 등이 들어있고 MP3들에는 북의 《인권》문제를 비방하여 쓴 책을 가지고 만든 린속극, 성경설교집 등이 들어있다.

각종 의약품과 식료품은 신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가지고왔으며 극소형카메라는 평양 시내의 여러 장면들과 《지하교회》활동상황, 《교회》세울 자리 등을 촬영하여 가져가고 성북화물 CD는 신도들이 그것을 복사, 밀매하는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할생각으로 가지고왔다.

로씨야와 중국, 일본의 기자들이 질문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욱의 반공화국범죄행위를 립증하는 자료들을 수록한 록화전집물에 대한 시청이 있었다.

본사기자

## 완화의 기류에 역행하는 불장난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끼여들어 감 놓으라, 배 놓으라 하며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음으로양으로 방해하던 미국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4일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벌려놓았다.

미국이 이번에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두고 《년례적》이라느니, 《방어적》이라느니 하면서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저들의 북침전쟁영입을 정당화하려는 껀변에 불과하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이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진행되어온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에 따라 진행되어왔다. 《작전계획 5027》은 조선반도 《유사시》수집단의 미륙군병력과 항공모함강습

단 6개를 동원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계획이다. 이 계획은 미국이 《신속억제전력》을 조선반도에 전개하는 1단계, 《북의 전략목표를 파괴》하는 2단계, 대규모병력이 북측해안에 상륙하는 3단계,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4단계, 《점령통치기구》를 내오는 5단계로 나뉘어져있다. 이것은 《작전계획 5027》이 공화국을 힘으로 타고앉히려는 핵선제공격리론으로 되어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작전계획 5029》는 공화국에 테로단체나 특수전병력을 잠입시켜 그 무는 《급변사태》를 일으켜 북을 어찌본다는것이다.

계획자체가 이렇다보니 훈련내용도 공격적이고 침략적이다. 미국은 이런 선제공격계획에 따라 매해 훈련을 진행하면서 선제공격계획을 계속수정하고 완비해왔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미군부는 훈련을 통해 《작전계획 5029》를 수정하며 보충완성한다고 떠들었다. 그러니 이번

연습이 방어가 아닌 핵선제공격을 노린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고 떠드는것이야말로 내외의론을 우롱하고 기만하는것이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몰아오는 위험한 전쟁세력, 평화파괴세력으로서의 저들의 호전적본성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남조선에서 진보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두고 《급변사태대비 명목아래 〈한〉미련합군을 침투시키는 훈련을 강화하는 등적대적인 성격이 뚜렷한 전쟁연습》이라고 단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리 겨레의 화해, 단합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인 미국은 이땅에서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압적존재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라》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한 훈련 등은 북의 변화론체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2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지난 해 〈한〉미련테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맞출형억제전력과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된다.》며 《맞출형억제전력은 북의 핵위기사향투형을 핵위협단계, 사용림박단계, 사용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북이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하겠다는그야말로 전쟁억지는커녕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공세적전략》이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부친 《평통사》는 《〈한〉미 량국은 북의 변화유도를 천명하고 울해 연습에서 북급변사태 대응시나리오를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서 예정된 북급변사태시 최단시간내 평양점령을 목표

한 대규모상륙훈련이나 대량살상무기제거작전, 북내저항세력지원과 구축작전을 포함한 특수전, 심지어에 관한 훈련 등은 북의 변화론군사적으로 유도(북정권 붕괴)하겠다는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훈련의 구체적내용을 공개하며 성토했다.

광주진보련대, 6.15평동위원회 광주진남본부 등도 광주 북구 《새누리당》광주시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대화국면을 파란내고 또다시 전쟁위기를 부를수 있다.》며 군사훈련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대결로 치닫던 남북이 7년만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우여곡절 끝에 흘

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성사시키는 등 어렵게 열린 대화국면에 〈한〉미당국이 그 어느때보다도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의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을 벌리는것은 남북대화와 협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대화단절은 물론 침에한 대결국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침략적인 군사연습의 위험성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60년이상 끊이지 않는 전쟁위기는 분단과 정전체제에서 비롯된다.》며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라.》고 촉구하였다.

본사기자



##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남조선 각계각층 군중 20만명 전지역에서 투쟁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월 25일 서울과 대전, 울산, 부산,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에서 각계각층 군중 20만명의 참가하에 대규모 반 《정

부》투쟁이 전개되었다. 서울 시청앞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4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생존권 쟁취하자.》고 외쳤다.

그들은 현 《정부》의 집권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화말살로 이어진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 녀성 등 각계각층이 더이상 그대로 참고있을수 없어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인정하였다.

집회에서 발언한 보건의료로조 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민을 속이며 강행하는 의로민영화정책은 의로부문을 재벌들의 돈벌이 터로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대규모실업과 의로비폭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단죄하였다.

철도로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철도민영화에 계속 매달리고있다고 하면서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은 당국이 불법선거에 개입한자들에게는

무죄를, 아무런 증거도 없는 내란음모 사건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장에인차별철폐련대 상임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기만적인 북지정책에 대해 성토했면서 《장애인들의 삶을 지켜달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달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결의문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부정선거와 민주화말살행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어떤 탄압속에서도 각계가 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권자퇴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벌렸다. 시청앞광장에 다시 모인 투쟁참가자들은 초물집회를 가졌다.

본사기자



지난 2월 22일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아베정권이 파견한 고위인물의 참가하에 제9회 《다께시마의 날》기념식이라느것이 벌어졌다.

2006년부터 매년 벌어지고있는 《다께시마의 날》기념식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영토》로 《결정》하였다는것을 리유로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령유권》의 주요근거로 삼았다는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력사적사실과 법적근거가 하나도 안받침되지 못한 불법무법의 조작문서, 침략문서로서 론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빈종이장에 불과하다.

당시 일본은 독도강점과 관련된 《법적문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이 무인도(독도)는 남의 나라에서 이것을 점령했다는 형적이 없는 즉... 명치 36년이후 나카이 요사부로란자가 이 섬에 넘어가 살면서 어업에 종사했다는것은 관계문건을 통하여 명백해진 사실이므로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이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 나라 소속으로 하며...》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것을 조작해냈다.

하지만 《시마네현고시 40호》가 《령유권》의 기초로 삼은 자료는 오히려 독도가 당시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그때 시마네현의 어업가인 나카이 요사부로로는 독도 주변에서의 물개잡이독점권을 얻기 위해 1904년 9월 일본 농상부성에 《리양요점(독도)차용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독도를 10년간한임차용(청원)을 하려고 하였다.》(1910년도에 쓴 나카이의 리력서)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근대일본의 여러 력사학자들도 인정하면서 기록으로 남기었다. 《나카이는 이 섬(독도)을 조선령토로 생각하고 상정하여 농상부성에 설명하여 동정부(조선봉건정조)에 임대청원하려 하였다.》(1923년 7월 《시마네현지》) 《나카이는 리양요점(독

도)을 조선령토로 믿고있었으며 동정부(조선봉건왕조)에 임대청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1933년 2월간행 《오끼도지》)

보논바와 같이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섬이라거 우기며 력사적, 법적근거로 내세우고있는 이른바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것은 기초로 삼은 자료자체가 오히려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한 아무런 력사적, 법적타당성도 가지지 못한 문서인

## 《시마네현고시》는 불법의 문서

은 당시 독도가 일본의 섬이 아니라 조선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나카이자신도 후날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령유》이기때문에 《상정하여 농상부성을 통해 조선봉건정부에 차용(청원)을 하려고 하였다.》(1910년도에 쓴 나카이의 리력서)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근대일본의 여러 력사학자들도 인정하면서 기록으로 남기었다.

《나카이는 이 섬(독도)을 조선령토로 생각하고 상정하여 농상부성에 설명하여 동정부(조선봉건정조)에 임대청원하려 하였다.》(1923년 7월 《시마네현지》) 《나카이는 리양요점(독

도)을 조선령토로 믿고있었으며 동정부(조선봉건왕조)에 임대청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1933년 2월간행 《오끼도지》)

보논바와 같이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섬이라거 우기며 력사적, 법적근거로 내세우고있는 이른바 《시마네현고시 40호》라는것은 기초로 삼은 자료자체가 오히려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한 아무런 력사적, 법적타당성도 가지지 못한 문서인

《나카이는 이 섬(독도)을 조선령토로 생각하고 상정하여 농상부성에 설명하여 동정부(조선봉건정조)에 임대청원하려 하였다.》(1923년 7월 《시마네현지》) 《나카이는 리양요점(독

12개 나라들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오가사와라섬의 부속섬인 미나마도리섬을 자기 령유로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고시를 중앙신문들인 《요미우리신보》과 《미야코신보》 등에 요란스레 실

하지만 《다께시마련입》에 관한 국가적의사라고 떠드는 이른바 내각의 《결정》이 정부의 판보에도, 신문들에도 게시되지 못하고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통보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시마네현고시》라는것이 얼마나 흑막속에 날조된 협잡문서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더구나 그보다 5년전인 1900년 조선봉건왕조가 우리 민족이 수천년간동안 주권을 행사해오던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근대의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칙령 제41호로 확인하고 정부판보로 널리 선포했다는것을 고려할때 《시마네현고시》를 근거로 《독도령유권》의 《합법화》를 떠드는 일본의 망동

이 얼마나 파렴치한것인가는 더욱 날같이 드러난다. 력사적사실들과 자료들은 오늘날 일본이 독도강탈책동의 력사적, 법적문서로 내흔드는 《시마네현고시》의 허황성과 불법성을 명명백백히 폭로하고있다.

력사학 교수, 박사 김은택

## 성 노예 범죄는 덮어버릴수 없다

이른바 물질문명을 자랑하면서도 정신도덕적면에서는 원시인들도 낮을 불힐 정도로 파렴치한 문명세계의 야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과거 저들이 저지른 성노예범죄를 한사코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일본의 정치인들이다.

얼마전 일본의 내각관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재검토할 기도를 또 다시 드러냈다.

그는 국회질문에서 《고노담화》의 근거로 되는 피해자들의 조사에 신빙성이 없다는 정부의 립장을 거듭하며 이러한 소리를 내뱉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이것은 일본이 얼마나 량심이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저렬하며 정치적으로 파렴치한가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다.

1993년 당시 일본내각관방장관이었던 고노가 정부부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구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죄의사를 표명한다는 력사의 엄연한 사실을 더는 부정할수도 묵여둘수도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백지화하여 과거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련행, 합치, 유괴하여 짐승도 낮을 불힐 통욕과 학살을 감행한 일본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 임신부에 이르기까지 말그대로 《사냥》을 하여 짐승우리같은 칸막이집에 넣고 주야로 출을 늘여서서 한명의 녀성에게 수십명씩 달려들어 갇은 짐승같은것을 다하고도 모자라 불용하거나 저항하면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말그대로 라인속에 대한 일본의 대강간행위이고 인종말살행위였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전쟁과 범죄행위를 기록하고있지만 그 수십만명의 라인족녀성들에 대하여 가장 가혹하고 잔인하게 인권과 성을 유린하고 육체를 폐기시키고 생명을 참살한 성노예범죄는 일찌기 없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도리이고 법도이며 관례이다.

그런데 일본은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범하고도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혹은 불힐 필요가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의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낮을 붉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게 하나 버리지 않고 수염을 내리쏘고있다.

일본의 도덕성이란 이렇게 추악하다.

일본당국자들이 아무리 생매장을 부려도 없는 사실이 생겨나거나 있는 사실이 없애지는것이 아니다.

바늘이라면 혹 숨길수도 있겠지만 조선민족의 빠른속도로 이 세계지고 아시아인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엄중한 반인륜적범죄를 어떻게 숨길수 있겠는가.

범죄행위는 어느때 가서든 반드시 결산되거마련이다. 일본당국이 갇은 오고랑수를 다 쓰며 성노예범죄를 감추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